



은퇴후에도 후배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노장' 불자들이 있다. 서상태 법사(왼쪽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후배들을 만나 신행상담을 한다. 안홍부씨(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감사원 불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은퇴 후 후배 돌보며 '이모작 신행'

▷후배들의 '지팡이' 되겠다

경찰불교회의 백전노장 서상태(69) 법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퇴직과 함께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에서 5년간 불교교리와 불교의식을 공부하고 후배 경찰 불자들과 만나고 있다.

37년간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수행해오다 1998년 퇴직 후 이제는 '후배들의 지팡이'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한 차례씩 서울 강북경찰서(구 북부경찰서)와 중앙경찰서를 찾아 법문을 하는 서 법사는 전국 방방곡곡 후배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도 마다 않는다.

서 법사는 6월 27일에도 절친한 도반인 김진홍(69) 법사와 함께 왕복 4시간 거리인 인천까지 다녀왔다. 바로 해양경찰청 불자회 창립발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서 법사는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퇴직을 앞둔 후배들이 경찰학교에 동참하겠다는 말을 할 때 힘이 난다"며 밝음을 웃는다.

▷신행상담은 내 몫!

감사원에 30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3월 퇴직한 안홍부(61)씨는 후배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와 감사원 불자회 창립을 주도하면서 공무원 불자들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안씨는 후배들의 직장 내 고민은 물론이고 신행방향을 정확히 짚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중국풍"으로 꼽히는 안씨는 공불련과 감사원 불자회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중국성지순례를 위해 중국의 불교성지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6월 27일 후배불자들을 만난 안씨는 "지방 출장이 많은 감사원의 업무 특성상 함께 모이는 것에 우선 신경을 써야

직자불교 '이모작'

'고령화' 우리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말 중의 하나다. 최근 들어 '저출산'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고령화는 불교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분포 현황을 봐도 그렇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불교인구의 특성을 보더라도 '불자들의 고령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후배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있는 '고령' 불자들이 있어 화제다.

이들은 일터불성을 일으키는 아전사령관의 역할은 물론이고 후배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듬는 후원자 역할까지 해내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고령' 불자의 후배 챙기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들여다본다.

▷법회 준비 도맡은 '법당 보살'

용산에 있는 서울철도차량관리단에서 법당을 관리하며 후배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는 이일승(63)씨. 이씨는 다소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법당 보살'을 자임하며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와 청소와 정리를 도맡았던 이씨는 2001년 6월 퇴직 이후에도 법당 관리를 계속했다.

이런 이씨의 모습에 부처님도 감동했는지 차량관리단은 이씨를 다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씨는 하루하루 부처님 품에서 일과 신행을 계속하고 있다.

불자회의 초하루·보름 법회 준비와 마무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이씨는 "불자회원들이 줄어들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후배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한다.

▷기다려라, 후배들이여!

상업은행 불자회에서 활동하다 98년 퇴직한 황정석(62)씨는 '아름다운 회향'을 준비하고 있다. 퇴직 이후 국내의 성지를 돌아보며 심신을 충전한 황씨는 최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고 있는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를 듣고 있다. 평소 선(禪) 공부에 관심이 많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던 차에 황씨는 "제대로 배워보자는 생각에 각종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에 열심이다."

황씨가 이렇게 선(禪)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후배들에게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다.

황씨는 "그래도 한국 전통 수행법은 '간화선'이 아니냐?"며 "나중에는 간화선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금융단 불자회 후배들과 만나고 싶다"는 '원력'을 숨기지 않는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불교성지가 일터인 '행운아'

실크로드여행사 이상원 사장



이상원 사장은 불교성지가 일터인 '행운아'다. 이 사장은 불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순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를 설립하게 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을 모시고 성지를 찾을 때 일어나는 환희심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에게도 고민은 많다. 장기간 집을 비우다 보니 함께 사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에게 항상 미안하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이 돼 버렸다. 또 이 사장만큼이나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과 대조사(大祖師)들의 흔적을 따라 구도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생각을 한다. 그곳이 인도건 중국이건 네팔이건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점에서 실크로드여행사 이상원(51·법홍) 사장은 일반 불자들의 부러움을 많이 사는 사람이다.

1989년 여행사를 개업한 이후 '성지'에만 300여 차례 이상 다녀왔다. 지금도 1년 365일중 200일 이상을 '성지'에서 보낸다.

"제가 아마 전생에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을 곁에서 모셨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던 중 조계사에서 우연찮게 무진장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한 이 사장은 군대를 마치고마자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일도 여행사에서 불교성지여행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인연(因緣)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왕 시작한 일, 성지

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족, 직원들과 함께 '부처님 법값'을 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죠."

함께 성지순례를 했던 대중들이 찾아와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이 사장은 최근 들어 직원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지순례객들이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성지를 둘러봤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서 요즘에는 8명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직원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일이 잘 알릴 때는 조계사 대웅전에 앉아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봅니다. 그렇게 있다보면 저의 잘못을 하나 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사무실에 오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장은 오늘도 환한 얼굴로 불자들을 맞는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복,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시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시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폭 ◆
▷ 시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즈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량선원 금강경 강의
-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圖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 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행이도 흔들리며 찬밥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멀쩡치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시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까지도 믿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밥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러, 잇몸농종,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